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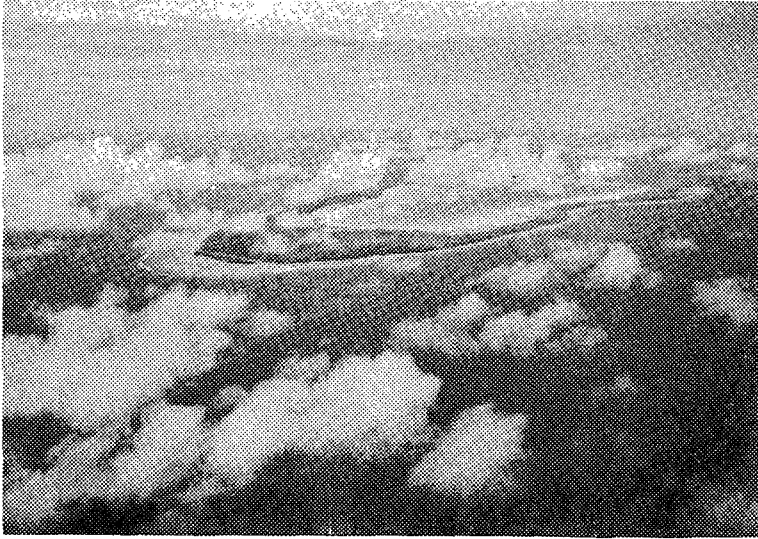
# 「우리」라는 공동체가 풀어야 할 환경매듭

인류의 당면 공동관심사인 환경문제는 지구의 환경오염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인류생존이란 차원에서 인류 스스로가 풀어야 할 지상과제로서 회자되어 온 터였습니다.

1972년 6월 5일부터 16일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던 UN환경회의가 채택한「UN환경선언」이후 그해 12월 개최된 UN 총회에서 발족한 「UN 환경계획(UNEP :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지구촌 감시계획 등 각종의 환경평가·기획사업을 추진하여 UN환경선언에 명시된 인간의 복지와 기본적인 권리의 향유에 필수적인 인간환경의 보전사업에 관한 계획관리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극복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반추하여 살펴보면 우선 1972년 로마클럽이 주장한 「성장의 한계」와 같은해 UN환경회의가 채택한 「인간환경선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장의 한계」는 인구의 증가나 경제성장은 적절히 억제하지 않으면 인류는 환경파괴나 식량부족으로 인해 결국 파피에 이르므로 ZERO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인간환경선언」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가 환경을 깨끗이 보전할 것과 국경을 초월한 환경보호체제 구축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박상선/월간 공해대책 발행인



그런 이후 1980년에는 미 카터대통령 지시로 미국정부가 작성한 「서기 2천년의 지구」에서 인구과밀을 비롯한 환경악화, 식량 및 물의 부족 등으로 극심한 빈부의 차가 생길 것 등의 내용이 예고되었습니다.

또한 1987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동경에서 열린 UN환경특별위원회에서는 오염된 지구의 구출법이라 불릴 수 있는 「동경선언」을 채택, 발표하였습니다.

UN환경특별위원회는 지난 82년 5월 UN환경계획 창설 10주년을 기념한 특별회의에서 지구의 환경위기를 막기 위해 UN에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한데서 비롯된 조직으로서 '83년 발족 이후 84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모임을 가진 뒤, 자카르타, 오슬로, 상파울로, 오타와 등지에서 지구보전대책에 관해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환경오염대책안 마련의 구심체로서의 조직적 기능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이렇듯 인류가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며 그 해결의 지혜를 모으려는 노력은, 환경문제가 예기치 못할 돌발성과 더불어 어느 한 지역 또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전세계적인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까닭에 지구촌 시점에 입각한 각국의 연구와 적용사례를 상호교류하여 창의적인 대책강구에 협력해야 할 난제점과 함께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환경의 국제화시대를 맞게 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계를 돌이켜보면, 형언할 수 없는 초보상태에 어쩔 수 없이 안주하고 있는 탓에 환경에 관한 관심을 담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라면 누구든 당혹감과 함께 개탄스런 심사가 되어 그 안타까운 시선을 다시금 거두어 들이고 말게 될 것입니다.

악화일로의 환경실태를 간과하고 넘길 수만은 없는 지금, 환경행정기관을 비롯한 학술단체 및 환경실무자의 뜻이 한데 어우러져 참다운 예지의 광휘를 뽐게 될 때 비로소 환경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우리들 각개 각인이 실천한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동참의식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여 대동단결된 큰 힘으로써 우리가 처한 환경공해와 더 나가 세계환경을 논의할 수 있는 지혜와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관련매체가 맡아야 할 역할 또한 지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전문지를 비롯한 환경관련매체의 역할은 단편적인 보도형식이 지니는 지엽성을 극복해 나가므로써 산학일체의 연계 속에 이상적인 국가 환경발전을 위한 조화에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환경대책마련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선두주자로서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관련업계의 일선 실무자들에게 활용 가능한 환경기술이론 및 시사각각 변화하는 환경계의 정보제공에 충실을 기해 효율과 안전을 바탕으로 한 실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전공학생들의 학습에 있어 지역을 떠난 학술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UN환경회의가 26개 원칙의 UN환경선언을 발표한지 어언 17년이 지난 지금,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괄목할만한 정

화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으나, 산성우를 비롯한 핵폐기물의 문제는 아직도 담보상태에 빠져 있는 실정이고 우리 또한 그 범주 밖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환경문제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와 개발은 선진국에 비할 수 없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만큼 최신과학정보의 국가간 기술교류의 문제는 더욱 시급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UN인간환경선언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환경행정계를 비롯한 학술단체 및 환경보전협회는 우리가 처한 엄연한 환경실태를 직시하고 해외선진 환경기술과의 국내 환경업계 접목을 통한 상호교류를 통해 창의적인 환경정화 기술 개발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역할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UN환경선언은 하나의 선언일 뿐이지 아직 국제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조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각국이 같은 인류라는 공동의식을 저버릴 때 선택의 여지를 떠난 파멸의 길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환경문제는 인류가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사랑, 그것을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깨우치게 될 때 비로소 그 매듭이 풀려지게 되리라 믿는 바입니다. \*

